



샘신 목사(좌), 강태광 목사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 그의 선거 사무실은 코리아타운플라자 347호이다. © 기독일보



© Pixabay

바나 리서치 "美 교회,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실패"

미국의 복음주의 연구자 조지 바나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성경적 신념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 다수와 신형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나가 이끄는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교 문화연구소는 2026년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보고서는 개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8개 핵심 영역에서 신념과 행동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 영역에서 "거의 또는 전혀 성경적 일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소명' 영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만이 완전한 성경적 일치를 보였고, 13%는 부분적 일치를 보였다. 반면 68%는 거의 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 성경 읽기, 전도 등을 포함한 '신앙 실천' 영역에서도 68%가 낮은 수준의 성경적 일치치를 보였으며, 완전한 일치와 부분적 일치는 각각 16%로 집계됐다.

성(性), 재정, 종교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생활 방식과 관계' 영역에서는 74%가 성경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도 동일하게 74%가 낮은 일치 수준을 보였다. 두 영역 모두 완전한 일치는 10%, 부분적 일치는 16%에 그쳤다.

성경의 권위와 도덕 상대주의를 다루는 '성경·진리·도덕' 영역에서는 77%가 낮은 일치를 보였으며, 완전한 일치는 10%에 불과했다. '하나님·창조·역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79%가 성경과 괴리를 보였고, 완전한 일치는 7%에 그쳤다.

결혼과 생명윤리 등을 포함한 '가정과 생명의 가치' 영역에서도 79%가 낮은 일치를 나타냈으며, 완전한 일치는 5%에 불과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 대한 이해를 다룬 '인간 본성' 영역에서는 무려 82%가 성경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샘신 목사, 가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 출마

가정·치안·경제 정책 방향 제시
 조찬기도회 4월 7일 7시 30분
 가든 스위트 호텔

샘신 목사(남가주교회 증경회장)가 캘리포니아 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샘목사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목회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필요' 출마 제안

샘목사는 최근 LA 카운티 레지스터 오피스를 방문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는 미군 복무와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해 왔으며, 현재 샘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화랑청소년재단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참여하며 청소년 리더십 교육에 힘써 왔다.

샘목사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언어도, 인맥도,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으로 나라를 섬겼고 경찰관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했으며, 지금은 목사로서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며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 넓은 영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샘목사는 출마 결심의 배경에 대해 공화당 관계자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전 공화당 관계자 네 명이 찾아와 26지구 상원의원 출마를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극구 거절했지만 왜냐를 원하느냐고 묻자 ‘우리 나라 정책에는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가정 회복과 가치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 이후로도 3주 동안 계속 연락이 이어졌

고 기도 끝에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6지구에 당선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변형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없는 미국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민들 생활비 부담 심각

샘목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생활비가 너무 높다. 집세와 가스비, 각종 공과금까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라며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기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한기홍 담임목사

뮤지컬 부활절 특별 공연
신천로역정
 Pilgrim's Progress; A New Chapter
 새로운 극본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뮤지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일시: 2026. 4. 10(금) 7:30PM
 11(토) 7:00PM
 12(주일) 6: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150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예매처:
 플러튼 - 은혜 서점
 세리토스 - 복음사
 LA - 기독 서적 센터
 문의: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6.1006
 www.gracemi.com

고문: 한기홍 담임 목사, 담당교역자/총감독: 김현철 목사, 국장: 장순범 장로, 조연출: 이응서 집사, 류수경 집사, 총무: 전승용 집사, 미舍利 집사, 팀마더: 김나희 사모
 중보기도 팀장: 정미아 전도사, 안무가: 유니스리 집사, 음악감독: 임보희 전도사, 배우: 신민훈 형제 & 한은경 집사 외 26명, 아역배우: 최시연 외 14명, 스테프: 제시카 집사의 25명
 후원: GMU, 중앙일보, 한국일보, 크리스찬 위클리, 크리스찬 비전, 기독일보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뱅크오브호프 '2026 호프장학금' 신청 접수

2026-2027년 대학 진학 예정 학생 60명에 2500불씩 수여

뱅크오브호프 산하 호프장학재단이 오는 5월 1일 오후 5시(동부 시간 기준)까지 '2026 호프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호프장학금은 2001년 시작된 뱅크오브호프의 대표적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내 차세대 인재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0명의 우수한 신입 대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2500달러, 총 15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 호프장학금은 미국 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예정인 2026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거주자여야 한다. 학업성취도, 재



2026년 호프 장학금. ©호프장학재단

정적 필요, 에세이와 추천서,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장학금 신청은 웹사이트 <https://scholarship.bankofhope.com>에

오브호프 홈페이지의 장학금 안내 페이지(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를 참고.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회장은 "뱅크오브호프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프장학금 프로그램을 25년 넘게 지속해 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올해도 꿈과 열정을 가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뱅크오브호프는 호프장학금 외에도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직원 봉사를 통한 금융 이해력(금융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민선 기자

제출서류 부모/보호자의 2025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hope_scholarship@bankofhope.com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 성적 증명서(PDF 형식)

다음 두 주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약 500 단어 분량을 영어 에세이로 작성. (주제 1 귀하가 경험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사건을 설명하십시오. 이를 어떻게 극복 했습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 했습니까?)

주제 2: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준 삶의 영역을 설명하는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은혜한인교회 뮤지컬 '신 천로역정' 일주일 앞으로

4월 10일-12일(금-주일) 3일간

4월 10일(금) ~12일(주일) 3일간 뮤지컬 '신 천로역정'이 은혜한인교회 무대에 오른다. 시간은 10일(금) 7시 30분, 11일(토) 7시, 12(주일) 6시 30분.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담당 김현철 목사, 국장 장순범 장모)이 기획하고 제작한, 뮤지컬 '신 천로역정'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극이다.

이번 뮤지컬 '신 천로역정'의 기획·극본·연출·감독을 맡은 김현철 목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은혜한인교회의 대형 뮤지컬 10편과 약 30여 편의 스킷을 제작해왔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뮤지컬 '신 천로역정'의 배우들이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

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시리즈의 극본과 연출, 감독을 맡았으며, 2022년 6월에는 '뮤지컬 킹 데이브'를 통

해 교민 사회 최대 규모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뮤지컬은 현대 기독교인의 삶

과 영적 전쟁, 영혼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각색됐다. 특히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폭넓게 초대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공연에는 극 중에 약 7분간 영화가 상영된다. 사랑이 없는 인간의 모습, 동성애, 인플루언서, 팩트체크, 성과주의, 불륜 등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등장해 기독교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배경으로 오렌지카운티, 플러틴의 여러 장소가 등장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각 장면마다 LA 다운타운, 글렌데일의 자연,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잇는 프리웨이 등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공연 시간은 1시간 40분이며, 주연(11명)과 조연(15명) 모두 합쳐 26명

의 배우가 등장한다. 음악은 대중가요 및 영화 음악 작곡가로 활동한 김유신 집사가 담당했다. 안무는 유니스 리 집사가, 음악감독은 임보희 전도사(지저스 힐링교회 지휘자)가 맡았다.

한편, 신 천로역정은 올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간 한국의 목포 사랑의 교회와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공연티켓은 \$10이며, LA 기독교서적센터, 세리토스 북음사, 플러튼 은혜서점(714-446-6001)에서 판매 중이다. 초등학생은 무료, 20명 이상 단체 관람시 \$8에 판매한다.

김민선 기자

문의: 714-446-6200/ 714-446-6001 주소: 150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무료 시력 검사

Vision Care Service West(이하 VCS West)가 오는 4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엘레이 아이 캠프(LA EYE CAMP)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는 무료 시력 검사, 무료 안과 검사, 무료 돋보기 안경, 무료 아동용 안경(만 7-18세), 무료 백내장 수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용 안경과 백내장 수술은 VCS West 지침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예약: 213-563-9307

→ 1면 기사 <샘 신 목사>에 이어서 또 "사람들은 더 이상 구호만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 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가정·치안·경제, 세 가지 정책 방향 제시

신 목사는 이번 선거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가정 중심 정책, 치안 회복,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며 "부모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내가 사는 지역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라며 "경찰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또 다음 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나는 화랑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

는 우리의 미래"라며 "교육은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과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나라를 종교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공동체,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그는 자신의 출마를 성경 속 다윗의 부르심에 비유하기도 했다. 신 목사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처럼 나 역시 같은 마음

으로 이 길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또 "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는 마음으로 이 길에 나왔다"며 "복음을 들고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오는 4월 7일 오전 7시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지역 지도자들을 초청해 조찬기도회와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역 리더들을 초청한 다목적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유철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토마스 맵 기자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 | 하나님의 나라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3가지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며(섬김), 이웃과 나누고(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전함) 한인교회로, 지역공동체와 한인사회, 미주와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더욱 힘을 내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7:30 AM
- 주일예배 2부 9:00 AM
- 주일예배 3부 11:00 AM
- 교육부예배 11:00 AM
- EM예배 1부 9:00 AM
- EM예배 2부 11:00 AM
- 청년부예배 1:30 PM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임현수 목사, “하나님과의 연합과 기도가 부흥의 비결”



임현수 목사. ©기독일보

인랜드교회 선교 컨퍼런스 선교적 삶의 본질 강조

인랜드교회(최원일 목사)가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를 감사로 초청해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임 목사는 하나님과의 연합,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선교적 삶의 본질을 강조했다.

GAP(세계협력선교회) 이사장, KWMC(세계선교협의회) 의장,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TMTC)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현수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 9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증거했다.

임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주

님과 붙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하려 하면 결국 죽게 된다”며 “이는 중력의 법칙과 같은 영적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안전과 자유, 평화”라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타락과 교만에 대해 말하며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착각이며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가정과 사회, 나라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사역 경험을 나

누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북한 지원과 선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550억 원의 재정을 채워주셨고,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다”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빛을 갖고 마음껏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인간 중심의 가치 때문이다”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기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데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로도 전 세계와 네트워크가 되고 통화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

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과거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규모 청소년 집회를 회상하기도 했다.

“금식기도 후 집회 직전에 보충 수업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체육관이 가득 찼다. 그때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오늘날 목회자와 선교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 역시 믿음으로 해결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며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해야 한다.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 기자

안주를 넘어... 노진준 목사가 전한 ‘진실한 제자도’

생수의강 선교교회 창립 29주년 부흥회, ‘헌신합니다’ 주제로 메시지 전함

생수의강 선교교회 창립 29주년을 기념한 ‘생수 춘계 부흥회’에서 순회설교자 노진준 목사가 “헌신합니다”(요한복음 11:11-16)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의 고백이 자녀야 할 ‘진실한 무개’에 대해 강조했다.



노진준 목사. ©생수의강선교교회

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 목사는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의 표현”이라며, 제자들의 연합 속에서 드려야 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설교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 노 목사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일상의 작은 시간조차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앙 고백의 가벼움을 지적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단순한 ‘천국행 보장’으로 축소시키는 태도를 경계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삶을 변화시키는 무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주와 함께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고백만큼은 진실해야 한다”며 “그 고백의 무게가 개인과 가정,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제자 됨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헌신의 고백을 지켜가기를 권면했다.

단순한 불신의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마의 고백은 불신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보고 싶은 갈망’의 표현이었다”며, 결국 도마가 예수를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장면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또 다른 모습, 곧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예수를 향한 위협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도마는 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결

남가주 3월 연합 기도 성회 성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는 3월 29일(주일) 오후 4시 주님의교회(최훈 목사)에서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3월 연합 기도성회’를 개최했다. ©남가주교회

지역별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회

남가주 한인 교회는 2026년 4월 5일(주일) 새벽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각 지역에서 드린다.
▶ LA 지역-평화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주관하는 LA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드린다.
▶ LA 동부 지역-선한침지기교회
LA 동부 지역은 오전 5시 30분, 선한침지기교회(송병주 목사,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본당에서 그리스

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한다.
▶ OC 지역-갈보리선교교회
OC 지역 연합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에서 드린다.
▶ 베이커스필드 지역-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4월 5일 주일 오전 6시에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에서 드린다.

not I,
but Christ

복음을 복음 되게 · 교회를 교회 되게 · 성도를 성도 되게



담임목사 백정우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8:00	토요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3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20	DSCP (영어예배)	주일 1부 - 오전 9:30 2부 - 오전 11:00
수요 경배와 찬양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평일 오전 5:30	방송 설교	미주복음방송 라디오 AM 1190 금요일 오전 8:30

예수, 다시 사셨네



“100세까지 어머니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세계를 향한 순회선교사로”

경남 창원 북면 내곡리 송촌박락 세각단에서 태어난 박정곤 목사는 어린 시절 교회를 두려워했던 산골 소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이후 목회와 부흥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박정곤 목사는 최근에 은혜한인 교회에서 열린 ‘2026 미래 목회, 선교 포럼’에 강사로 방문한 자리에서 본지를 만나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간증했다.

박 목사는 1958년 경남 창원 북면 내곡리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시 마을에는 강씨, 하씨, 박씨 등 19가구가 살았고 식구 수가 많아 약 100여 명이 거주했다. 그는 “절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위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다. 학교까지 약 3km를 걸어 다녀야 했고, 시골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터에 가기 위해 교회 앞을 지나야 했다. 그는 “예배당에서 어른이 나오시면 우리를 잡아갈 줄 알고 친구들과 100m 달리기를 하듯 도망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가난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입학금을 내지 못해 중학교 1학년 때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마산으로 돈을 벌러 나갔다”고 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16세 때 교회에 나가면서 큰 전환점을 맞는다. 마산에서 사귀 친구의 소개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특히 그의 신앙 여정에는 어머니의 기적적인 치유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49세 무렵부터 2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살던 마산의 자취방으로 옮기게 된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었고, 한 집사님은 매일 두세 시간씩 집에 와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박 목사는 “어머니가 석 달이면 돌아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회복되었다”며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고 이후 50년을 더 사셔서 2023년, 100세로 천국에 가셨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가족 또한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후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군 복무 후 학업을 이어가고 신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했다. 신학과 재학 시절 전도사로 사역하며 어린이 전도에 힘쓰게 된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시작했고 매주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주일학교 학생이 250명 정도였는데 몇 달 사이 750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 성령운동과 전도 사역을 이어갔다.

1989년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이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서면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도서관과 학원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시작했고 매주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왔다. 120명이던 중고등부가 250명으로 늘어났고, 1,000명 초경 전도 행사에는 실제로 930여 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약 25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했다”

이후 그는 서울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뒤 전남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2001년 거제 고현교회에 부임했다. 당시 고현교회는 등록 교인이 약 700명 정도였다.

교회는 크게 성장했다. 그는 “현재 거제 시민 약 23만 명 가운데 약 5천 명이 고현교회 등록 교인”이라며 “주일마다 3천 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는 외국인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네덜란드어권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 미얀마 예배도 시작할 예정이다.

선교 사역 역시 크게 확대됐다. 그는 “교회가 부흥했을 때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고 해외 선교도 확대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선교 지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며 “처음 부임했을 때는 20여 교회와 선교사들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국내외 약 800여 곳의 교회와 선교사, 사역 단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기도 가운데 새로운 결



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원래 2029년에 은퇴할 계획이었지만 기도 가운데 조기 은퇴를 결심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선교사로 사역하고 싶다는 것이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과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중 집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 집회를 통해 약 5,700여 명이 헌신

했고 전체적으로 약 6,000명이 목회와 선교에 헌신했다. 앞으로 1만 명 이상을 선교에 동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박 목사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복음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제2회 MK 미술공모전
THE STORY
이야기가 있는 그림

총상금 \$10,000
· 전 세계 중고등부 대상

작품 크기 (제 1)
15x20 / 20x20 / 28x38 inch
종이 또는 캔버스

주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신 나의 이야기
대상: 전 세계 선교사 자녀(중·고·대학생)
접수: 2026. 4월 30일(QRForm 작품사실인보)
선정: 5월 5일 발표 (선정자에 한해 작품 배송 안내)
수상: 2026. 9월 15일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 필지 및 접수 양식
· 작품명: (작품 1부) / (작품 2부) / (작품 3부)
· 제목: 자유 100자 이내

주최: 333TheStory 후원: GACHGallery(다온갤러리) 협력: GAC(미국복음화) 협력: 333TheStory@gmail.com (714) 749-6620

제2회 선교사 자녀 대상 미술 공모전

작년에 이어 153 더스토리(Gallery)와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MK 미술공모전을 연다. 올해 총상금은 \$10,000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세계 선교사 자녀(중학생-대학생)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나의 이야기”이다. 선교지에서의 삶과 신앙의 여정, 성장과 극복, 관계와 공동

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접수는 2026년 4월 20일까지이며, 발표는 5월 5일에 이루어진다.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명/이름/나이/작품 설명(3-5줄)을 동봉해야 한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이 안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진로상담과 및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

기회가 주어진다. 주제: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나의 이야기
대상: 전 세계 선교사 자녀(중학생-대학생)
접수: 4월 30일 (QRForm 작품 사진 업로드)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스미션)

Jesus Saves
Fathers Table
아버지 밥상교회의 주일 예배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0
3부 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청년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He is Risen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 모두 한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합시다!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치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건강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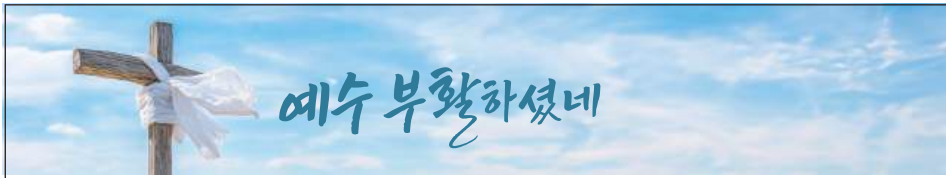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남덕중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840 El Camino Rd, Las Vegas, NV 89103
 T. (702)686-0691 hope21ch@naver.com http://pilgrimch.com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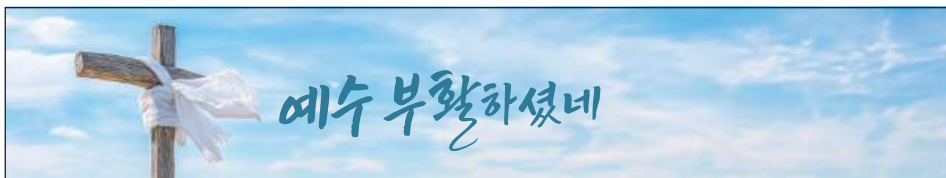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45
 주일찬양예배 3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말씀 양육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토요일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한빛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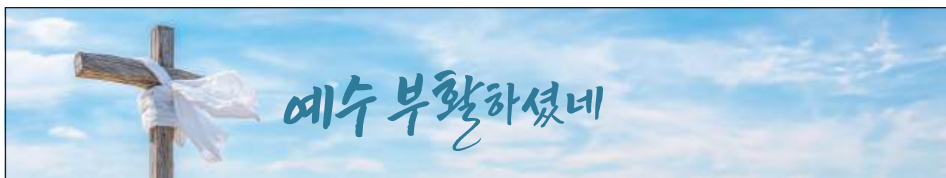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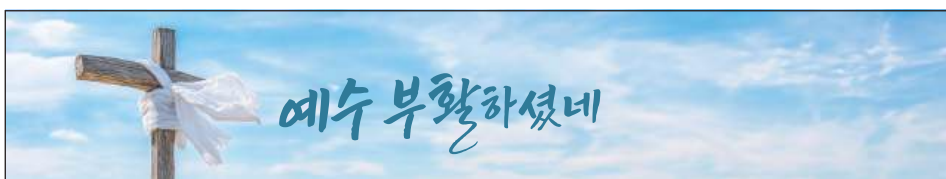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김진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main@wpca.org https://wpca.org



온타리오연합감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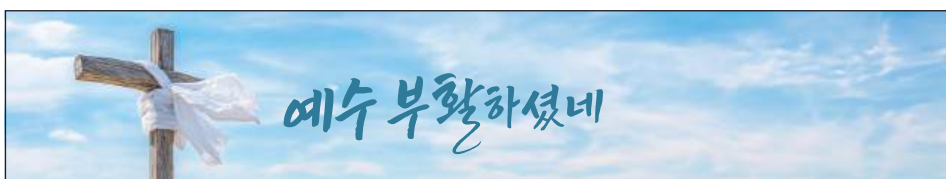
한어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교회학교(한영) 오전 10:00 & 1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이성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918 N Euclid Ave, Ontario, CA 91764
 T. (909) 986-6641 / www.ontariofumc.org



뉴버리팍 브릿지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Youth /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7:00
 주일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오후 1:00
 수요일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오전 10:00
 목요일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오전 10:00
 금요일 중보기도모임 오전 10:00



김재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T. (800) 484-0992 / www.mybridgechurch.org

교회 출석 빈도 높을수록 성경적 신념 일치도 높아...

최근 연구 결과,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신자일수록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5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개신교인 3,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조사는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정기 출석자'와 월 1~2회 참석하는 '비정기 출석자'를 구분해,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다양한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비교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기 출석자의 85%가 강하게 동의한 반면, 비정기 출석자는 64%에 그쳤다. 또한 '예수는 위대한 교



사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기 출석자의 61%가 강하게 반대했으나, 비정기 출석자는 37%만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통계학자 다니엘 프라이스는 "출석 빈도와 신학적 입장 간의 이러한 관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단순히 출석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신학적 이해가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혼관에 있어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라는 진술에 정기 출석자의 84%가 강하게 동의했으며, 비정기 출석자는

68%였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성경은 고대 신화에 불과하며 문자적으로 참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정기 출석자의 64%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비정기 출석자는 37%에 그쳤다.

윤리적 이슈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전통적 결혼 외의 성관계는 죄'라는 문항에 정기 출석자의 68%가 강하게 동의했고, 비정기 출석자는 42%였다. '낙태는 죄'라는 응답 역시 정기 출석자는 61%, 비정기 출석자는 38%로 나타났다.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관련 질문에서도 차이가 이어졌다.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기 출석자의 71%가 강하게 반대했으며, 비정기 출석자는 51%였다. 또

한 '성경의 동성애 금지 가르침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정기 출석자의 67%가 강하게 반대한 반면, 비정기 출석자는 41%였다.

프라이스는 "기독교인들은 비정기 출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 성경적 이해와 신앙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프웨이 리서치 CEO 스톱 맥코넬은 "정기 출석자와 비정기 출석자 간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의 정확성과 권위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찬양, 성경 읽기를 포함하는 만큼, 출석을 장려하는 한 방법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미드웨스턴 권혁수 교수, "MZ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 미래도 없다"

[이전호 'AI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이어서 계속]

지난 호 <AI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를 준비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권혁수 교수는 AI 시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다. 그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가 있는 캔자스시 뿐 아니라 LA, 애틀랜타, 시카고 등 여러 지역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 밖 모임을 통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 하며, 교회 내 기성 세대의 문화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금의 후임 목회자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교회의 문화와 운영 방식도 형성되어 있다. 결국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자신의 목회 철학과 방향성을 자유롭게 펼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세대 간 인식의 간극도 발생한다. 1세대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해냈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 있고, 후임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전 세대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특징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들을 '주체성이 약한 세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발

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전 세대는 성장의 흐름 속에서 목회를 경험했다. 반면 지금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교회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일곱 집사 피택
권혁수 교수는, 초대교회 헬라과 유대인과 히브리과 유대인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 초대교회 안의 두 파 사이의 갈등이, 오늘날 한인교회 안의 KM과 EM 사이의 갈등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헬라과 유대인들이 그들과 히브리과 유대인 사이에 양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자 불만을 제기한다. 헬라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성장한 유대인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사도들이 단순히 바빠서 헬라과 유대인들을 돌보지 못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KM 목회자들이 EM 공동체의 문화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세밀하게 돌보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즉,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결정한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

게 해서 일곱 명의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사역을 맡겼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다. 헬라과 공동체의 필요가 효과적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논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MZ세대라기 보다는, 그보다 윗세대인 경우가 많다."

"선교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사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 원리를 교회 안에 적용해 본다면, 해결책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당회, 밀레니얼 세대를 수용해야
"이미 40대 초반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교회가 선택했던 방식은 주로 '젊은 목회자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젊은 목회자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설교와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유입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일부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왜 잘 안됐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2대, 3대 목회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주도권이 더 이상 단일 목회자에게 있지 않고, 당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세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가 와서 새로운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기성 세대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본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과 충돌이 쌓이게 되고, 결국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 젊은 목회자가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국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여전도회 등 핵심 리더십 안에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밀레니얼 세대가 형, 누나, 언니 역할을 하면서 그 아래 Z세대와 알파세대(2010~2024년생)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를 준비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1980년대생부터 밀레니얼로 본다면 이미 40

대를 넘었고, 사회에서는 중견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젊은 층' 혹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경력, 지식, 신앙적 훈련,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면 부족한 점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이 당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요 모임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MZ세대를 대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잡음이 따른다. 오히려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때로는 비판과 갈등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시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고, 실패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들이 당장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시도들이 점진적으로 쌓여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가 준비된 교회만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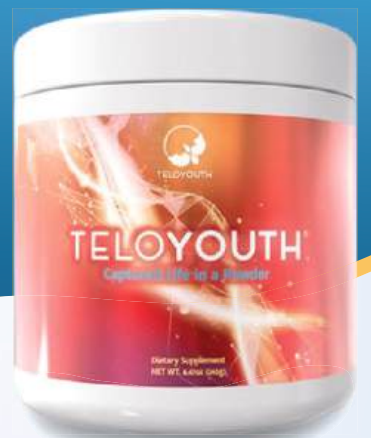
주디 한 기자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벨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www.TeloHealing.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무매출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714-851-8035

캐나다 '혐오 대응법' 하원 통과 종교 표현 보호 약화 논란 확산

캐나다 하원이 '혐오 행위' 처벌과 관련된 종교적 보호 조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은 최근 '혐오 대응법(Combating Hate Act)'으로 불리는 법안(C-09)을 찬성 186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갈린 가운데, 자유당과 블록퀘벡당이 찬성한 반면 보수당, 신민주당, 녹색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인종, 민족·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동기'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 교육기관, 노인 거주 시설, 묘지 등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혐오'를 "비난과 증오와 명백히 연관된 강렬하고 극단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범죄를 기소 가능한 중범죄 또는 악성 기소 대상 범죄로 규정한다.

다만 법안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적·종교적·정치적·과학적 발언이 고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축소·정당화하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존 형법에 포함돼 있던 '선의(good faith)'에 따른 종교적 표현 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개인이 종교적 주제나 경전에 기반한 신념을 성실하게 표현하거나 논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교회의 의장인 피에르 구드로 신부는 지난해 말 마크 카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조항 삭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의에 기반한 종교적 표현 보호 조항의 폐지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이 조항은 오랜 기간 캐나다인들이 악의 없이 진지하게 신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해온 핵심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전통적인 도덕적·교리적 가르침을 표현하는 행위가 혐오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최대 2년의 징역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종교 지도자와 교육자, 신앙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혐오 발언의 범위는 실제 형법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보호 장치가 사라질 경우 실제 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종교적 표현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최종 발효를 위해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후 총리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확정된다. 캐나다는 상원은 오는 4월 14일 회기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쿠바 침례교, 국가 위기 속 신앙과 섬김 강조... 경제난 속 교회 역할 주목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쿠바가 심화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이주 증가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운데 서부 쿠바 침례교 연합(CBCOcc)이 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교회가 영적 중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필요를 돌보는 실천적 사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3일 발표됐으며, 서부 쿠바 침례교 연합 회장 바르바로 아벨 마레로 카스테야노스 목사가 서명했다.

문서는 현재 쿠바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외부 환경의 압박과 내부 논쟁 속에서 본래의 영적 사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쿠바는 생필품 부족과 공공 서비스 약화, 해외 이주 증가 등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의미 강조

침례교 지도부는 현재 상황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고통이 확산되는 어려운 시기로 규정했다. 물질적 부족뿐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위생 환경 악화와 범죄 증가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선교는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들 곁에 머무르며 섬기는 삶 역시 선교적 사명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많은 쿠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남기를 선택했다고 성명은 설명했다. 이러한 선택은 신앙적 소명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례교 지도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가 지도자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영적 회복의 필요성과도 연결돼 있다고 언급했다.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됐다.

교회의 사회적 섬김 확대... 식량 지원과 의료 지원 지속

서부 쿠바 침례교 교회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는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식량 부족을 겪는 아동을 위해 정기적인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회 내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료 봉사 활동이 진행됐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인들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 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침례교 지도부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지원은 복음 선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인 희망은 신앙 안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회와 정치 관계에 대한 입장... 신앙 정체성 유지 강조

성명에서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다루었다. 일부에서 종교 단체가 정치적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침례교 전통이 강조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이 재확인됐다.

지도부는 성경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교회가 정치적 권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보다 영적 사명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의 역할이 정치적 활동보다 영적 사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됐다.

분열 경계하며 공동체 연합 강조... 신앙 회복 촉구

서부 쿠바 침례교 연합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신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언급됐다.

성명은 "지금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는 전통적 구호를 다시 언급하며 신앙적 회복이 사회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침례교 지도부는 교회가 신앙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희망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일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뭇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이하예배 오전 9:15)
3부예배(사제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파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위로하며, 선교를 영혼을 승화시키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잠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주요종파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종교대학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종파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교육부: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토)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예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뷰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골 3: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령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서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감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중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산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우간다 기독교 개종 여성 피습 성경공부 중 남편 공격으로 중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우간다 동부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이 성경공부 모임 중 남편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개종 이후 신앙 활동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하지야티 키야쿠와 카미야티는 지난 11일 우간다 부기리 지역의 한 교회에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던 중 공격을 받았으며, 현재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부기리 조인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카미야티는 여섯 자녀를 둔 어머니로 알려졌다.

카미야티는 지난해 메카 순례를 다녀온 이후 약 두 달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성경공부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담당 목회자인 레베카 나키란다는 카미야티가 새 신앙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카미야티는 병상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 교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이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수요일과 토요일 예배에 참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경공부 모임 중 발생한 공격 사건

CDI는 카미야티가 그의 남편 무키비라 자부가 자신의 개종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지인 압둘라가 교회 출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남편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카미야티는 오후 2시쯤 교회에서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전화로 그의 위치를 물었다. 카미야티는 시중에 있다고 답했으며 남편은 이를 뒤 뒤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 30분 뒤 남편은 막대기와 흉기를 들고 성경공부 모임 장소에 들어와 공격을 가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성경을 받은 뒤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편은 카미야티가 서 있던 곳으로 곧장 향해 공격을 시작



하지야티 키야쿠와 카미야티의 모습. 그는 지난 3월 11일 우간다 동부에서 예배 중 공격을 당했다. ©Morning Star News

했다. 카미야티는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손 골절과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었다. 공격 이후 가해자는 현장을 떠나 도주한 상태다.

종교 개종 이후 이어진 긴장 상황
사건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일부 신도들은 두려움 속에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미야티는 현재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우간다에서 개종 이후 발생하는 갈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간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앙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간다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약 12% 수준이며 동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연 기자

시리아 기독교 마을 폭력 사태 “평화 · 안정 회복 촉구”

시리아 중부의 한 기독교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교회 지도자들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하마 주 알수카일 라비야에서 두 남성 간의 언쟁이 촉발점이 되어 종파 간 폭력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발생했으며, 인근 수니파 지역인 칼라얏 알마디크에서 오토바이를 탄 수십 명이 몰려와 기독교인들의 주택과 상점, 차량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 과정에서 리안 드웨이의 의류 상점도 총격을 받았다. 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공포와 두려움, 극도의 불안 상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폭력 사태는 정부군의 개입으로 진압됐지만, 같은 날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알수카일라비야 거리로 나와 정의와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리아 정교회 지도자인 모르 아프렘 2세와 요한 10세는 이번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시민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회의의 직후 나온 것으로, 회의에서는 시리아 내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회 지도자들은 “무슬림과 기독교 시민 간 공존을 위협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통제되지 않은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고,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며, 모든 시민의 존엄을 예외 없이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



©Pixabay

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시민권, 권리와 의무의 평등, 개인과 공공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총대주교는 “모든 기념 행사를 교회 내 기도 중심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24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정부의 치안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마르 엘리아스 그리스정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2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숨졌으며, 지난달에는 흠스에서 47세 기독교 교사 이만 자루스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그녀가 알려피와 오인돼 희생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부활과 자연주의의 충돌 '추측'이 신앙을 무너뜨릴 반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말론 드 블라시오 작가의 기고글인 '왜 하나님을 '부활 vs 자연주의: 왜 단순한 추측은 반박이 될 수 없는가'(The Resurrection vs naturalism: Why speculation isn't a defeater)를 28일 게재했다.

블라시오 작가는 문화 옹호자, 기독교 작가, 그리고 '문화를 분별하다'(Discerning Culture)의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다. 필자가 회의적인 이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긴장은 언제나 자연주의가 제시하는 미묘하면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사상가들은 인간이

결정적 반증(defeater)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자연주의 역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주의는 물질적 세계 안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감각,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이 단순한 물질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도 모른다"와 같은 가설적 표현은 실제 반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자연주의가 진정한 반증이 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성경 저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 역시 발견된 적이 없다. 만일 1,600년에 걸쳐 성경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후대에게 그 허구를 유지하



말론 드 블라시오 작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 성경, 역사적 탐구, 경험, 심지어 과학까지 활용해 왔다. 물론 이성적인 기독교 사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기초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수반한 지적인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건이며, 동시에 그것이 참이라면 다른 종교들의 주장 역시 거짓이 됨을 의미한다. 필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이 누리는 '복된 확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라고 정의한다.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자의 확신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신자는 은혜의 초창기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비신앙의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린도 후서 5:17-18)라고 기록했다. 복음의 메시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지성과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기독교 신앙이 근거 없다는 비판은 실제로 입증된 적이 없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한 시점은 19세기 독일 서서비평학이 영미권 학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였다. 역사학자 다니엘 K. 윌리엄스는 그의 저서 『합리적 신앙을 향한 탐구(The Search for a Rational Faith)』에서 독일의 회의주의가 복음서의 기적 사건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결국 그것들을 예수 사후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전설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활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반증은 무엇인가? 어떤 확정적 증거가 부활을 부정하는가? 자연주의적 전제는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 이후 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한다. 그 결과 부활의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 저자들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했다는 주장, 예언 성취가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다는 주장,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주장, 각종 음모론 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도록 지시하는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세대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다른 종교 역시 종교적 경험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 '복된 확신'을 누리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의 경험은 바울의 고백과 일치해 왔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1).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칭의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신자들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겨 왔다.

회의적인 주장들이 아무리 반복된다 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의 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1:25-26)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한복음 6:63)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갈라디아서 4:6). 결국 신자는 살아 계신 구주를 믿는 믿음이 성경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함을 지성과 경험 속에서 확신하게 된다. 1873년, 서구 사회가 근대 사상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하던 시기에 찬송가 작가 패니 크로스비는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이라는 가사를 남겼다. 이 고백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히브리서 10:22-23)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의론자 역시 사랑의 대상이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성과 경험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돌)미자주인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8: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연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돌)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미음(베베)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오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5:3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 (818) 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기도회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 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 (512) 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0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배변은 숙면제와 먹으면서 좌중 증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 고기, 김치만두
- 찹쌀 모방떡
- 술빵 새우만두
- 떡갈비 정식
-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LA 복음화 향한 대규모 영적 운동

LA에서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Hope California'가 주관하는 이번 사역은 오는 4월 11일(토) 'Hope Fest LA'로 이어진다.

이 집회를 앞두고 4월 9일까지 40일 동안 LA 전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과 금식,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Mission 1 Million'은 이번 사역의 핵심 프로젝트로, LA 전역에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든 연합 운동은 4월 11일 오후 12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Hope Fest LA'로 이어진다.

Hope Fest LA는 4월 11일 오후 12시 30분 아주사 120주년을 기념한 기도집회로 시작해, 다양한 위심 리더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오후 4:00 - 9:00)로 이어진다. 김 워커 스미스(Kim Walker-

Smith), 레크레(Lecrae), 미엘 샌 마르코스(Miel San Marcos), Sons of Thunder, Miles Minnick, Rua Young 등이 함께하며 Nathan Morris와 Shake the Nations이 복음 메시지와 영적 도전을 전할 예정이다.

행사는 무료이며 등록은 호프 캘리포니아(Hope California) 웹사이트 (<https://www.hopecalifornia.us/>)에서 할 수 있다.



'연령별 신앙 발달' 부모교육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 PCCE 주최 연령에 따른 신앙 발달의 특징

월드미션대학교 부설기관인 PCCE(퍼시픽교육문화센터, <https://pccce.wmu.edu/>)는 오는 4월 9일(목) 오후 7시(서부시간 기준)에 줌으로 첫 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성지 박사(기독교교육학, WMU 겸임교수)가 나서 자녀의 연령과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부모가 각 시기에 맞게 자녀의 신앙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나누게 된다.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PCCE는 다음세대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가정예배와 세대간 통합예배를 지원하며 부모교육 프

2026 PCCE 주최 부모교육 세미나

"자녀의 신앙 발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녀의 신앙은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통해 과파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아이의 연령과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녀의 신앙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그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일정: 4월 9일(목) 저녁 7시 강사: 최성지 박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WMU 겸임교수) 진행 방법: Zoom 온라인 세미나

신청 마감: 4월 6일(월) 자정 등록비: 없음 세미나 신청 링크: <https://forms.gle/QVxRKvnoQ-iejbLYH9> PCCE Web: <https://pccce.wmu.edu>

→ 1면 기사(美 교회, 성경적 세계관)에 이어서

연구진은 응답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성경적 신념과 행동이 일관된 '통합된 제자(Integrated Disciples)', 일부만 일치하는 '신앙 추종자(Emergent Followers)',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주로 좌우되는 '세계 시민'이다.

이 가운데 '신앙 추종자'는 약 2,500만 명 규모로 추산됐으며, 바나나는 이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경우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나는 "현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집중적인 양육과 지도만 있다면 수백만 명이 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신앙 추종자'의 세계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과 생명의 가치', '하나님·창조·역사' 영역에서의 약점은 목회자, 신학교 교수, 부모,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

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바나는 또한 애니미즘 수용, 낙태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경의 모호성 인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기피, 비신자에게 신앙을 전하는 빈도의 부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진다면 미국 교회는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회의 회복은 미국 사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김은목 칼럼

부활 신앙 위에 다시 서는 교회



김은목 목사
남가주교협 56대 회장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며 부활의 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혼란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 1:14).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 오신 사건이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둘째,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롬 5:8).

이는 대속적 죽음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구원의 중심 사건입니다.

셋째,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20).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

이 “첫 열매”는 장차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시작이며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이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넷째, 재림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행 1:11).

이는 역사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향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십자가-부활-재림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며,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단지 한 절기

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서야 하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복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6년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 그리고 사명 회복을 위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기도 운동에 힘쓰고 있으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를 넘어 미 전역에 회복을 향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 위에 이 모든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남가주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능력입니다!

최국현 칼럼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는 하나 됨과 소망



최국현 목사
O.C 교회협의회 회장

사랑하는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단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완성된 날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서서, 우리

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 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1)라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늘의 부탁입니다. 참된 연합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달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다시 이 거룩한 연합을 회복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첫 새벽에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은 아들이 가장 깊은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눈물로 무덤을 찾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낙심

과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혹 삶의 무게가 무겁고, 현실의 벽이 높고, 시대의 어둠이 짙어 보여도,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새벽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에는 형식적인 기념을 넘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 부활절을 맞아 한국과 이곳 미국의 한인 사회 위에 참된 부활의 희망과 소망의 여명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 이민 공동체에도 여전히 아픔과 갈등, 혼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절망의 시대 한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명의 때에,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밝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생명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교회가 다시 복음의 열정과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

을 힘입어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를 세우신 뜻은 단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만 있지 않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부활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며,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새 출발의 아침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등불로 더욱 힘 있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십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첫 새벽의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한국과 미국의 한인 사회 위에 영적 여명이 밝아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LA시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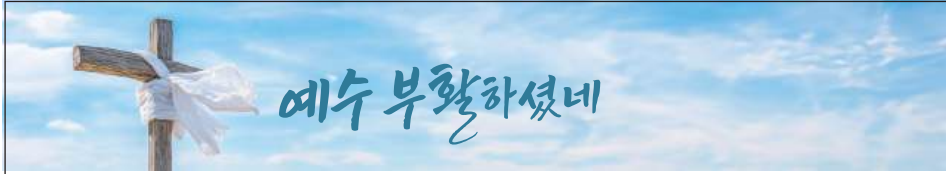
써니킴 담임목사
플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나는 일터선교사입니다" 저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요한복음 11:25-26)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 어노인팅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1부) 오전 9:00
 EM예배(2부)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884-2391



남가주주안에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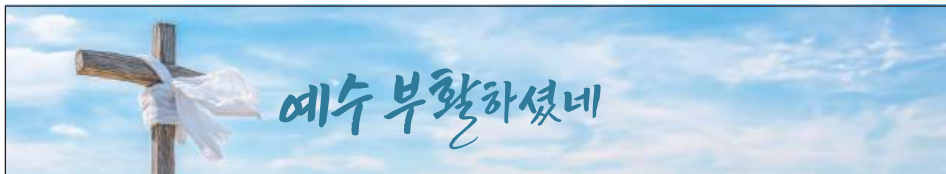
주일오전 11시 (플러튼)
 토요일새벽 6시 (플러튼)
 수요일 오후 6시 (엘에이)



김상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44
 T. (213)422-6388 , (714)452-1555
 www.inchristusa.org



그리스도의 흔적을 행하는 주님 Church (갈6:17)

주님 Church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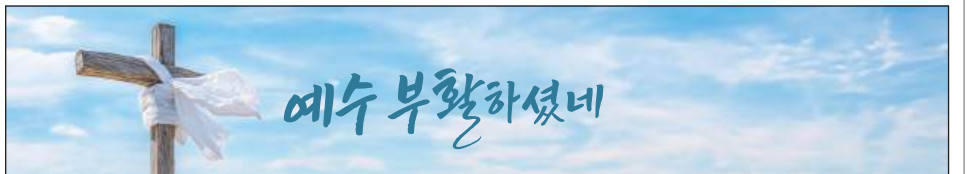
주일 예배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차세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오후 12:40



최현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주일예배 장소 : Sonora High School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주중 모임 은혜채플 : 223 E Imperial Hwy #145 Fullerton CA 92835
 사무실 :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T. (626)901-9191 / www.joonim.org



다우니제일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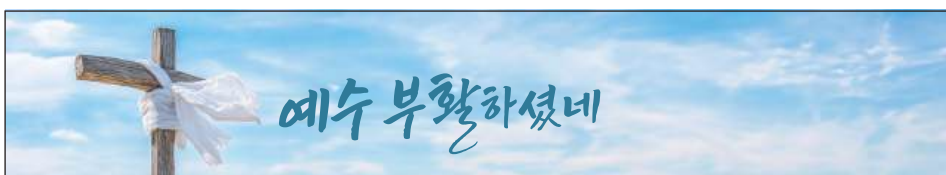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스베가스 중앙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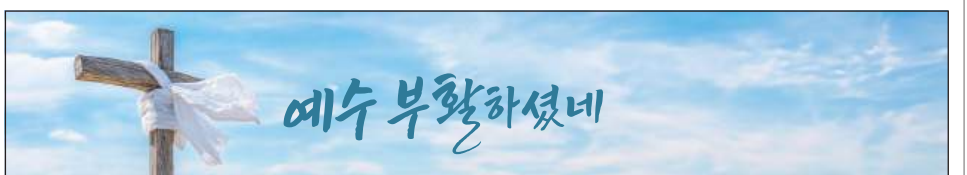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화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임인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목동칼럼 (13)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맞는 부활의 계절



신 병욱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봄은 죽음을 이기는 계절이다. 겨우내 얼어 붙어 죽은 듯 보이던 땅은 어느 날 조용히 갈라지고, 그 틈에서 연둣빛 새순이 올라온다. 메마른 가지 끝에 꽃망울이 맺히고, 차갑던 들판 위로 다시 생명의 기척이 번진다. 자연은 해마다 한 가지 진실을 말한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생명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 부활절은 바로 이 봄의 언어를 가장 깊이 품고 있는 절기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십자

가의 밤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고, 짐목 속에서 괴리셨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자리에서 죽으셨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철저한 패배로 보았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희망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 가장 어두운 자리가 가장 찬란한 사랑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상처, 끊어진 관계와 깊은 죄책감을 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오늘도 절망 속에 웅크린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우리 시대의 더 깊은 문제는 환경보다 내면의 굳어짐에 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에 있다. 오래된 상처, 자기중심적 욕망, 굳어진 편견과 교만은 사람을 살아 있으나 죽은 듯한 상태로 만든다. 십자가는 그 오래된 자아를 내려놓게 한다. 예수님을 바라

볼 때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옮겨간다. 욕망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닫힌 존재에서 열린 존재로 새롭게 빚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넘어 존재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세상은 힘과 권력, 성공과 소유를 승리라 부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죄의 정죄를 끝내고, 인간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절망,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폭력을 이기고, 가장 침묵해 보이는 진리가 마지막 말을 갖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 준 승리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다. 빈 무덤은 십자가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선포한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되고, 변화의 능력은 새 생명이 되며, 승리의 능력은 영원한 선언이 된다. 죽음은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고, 절망은 결말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무너진 관계, 지

친 공동체, 멈춰버린 꿈, 병든 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실의 자리들. 그러나 부활절은 그 모든 자리 위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아직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온다고. 봄은 해마다 그 사실을 증언한다. 죽은 듯 보였던 가지 끝에서 꽃은 다시 핀다. 인간의 삶도 그렇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절은 교회 안의 절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을 버티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가슴 벅찬 소망의 계절이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며, 변화의 능력이며, 승리의 능력이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능력이 마침내 기쁨으로 꽃피는, 내 영혼과 내 영원의 봄날이다. 이제 꽃 향기 가득 머금은 부활의 봄 햇살을 맞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분과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열며, 눈을 맞추며 오래오래 십자가 사랑 이야기, 부활이야기, 두런두런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그대가 되면 어떠실지~.

강준민 칼럼

절망의 재(ash)는 소망의 흙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절망은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절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절망은 재(ash)와 같습니다.

재는 불에 타고 남은 것입니다. '절망의 재'라는 뜻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타 버리고 남은 잿더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관계, 실패한 목표, 상실, 배신, 눈물, 후회 그리고 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재는 모든 것이 불에 타 버린 것의 흔적입니다. 뜨거운 불길 지나간 자리입니다. 남은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

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끝자락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다시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벼랑 끝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재' 속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재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사 61:3). 절망의 때는 슬픔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를 대신해서 화관을 선물해 주십니다. '재(ash)'가 상실과 고통과 수치를 의미한다면 '화관'은 기쁨과 영광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의 재'는 새로운 시작의 흙이 됩니다. 하나님은 재를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차가운 재를 보며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를 보십니다. 그 작은 불씨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식어 버린 자리에서 불을 불이시는 분이십니다.

흙은 자신을 티끌과 재 같다고 탄식했습니다(욥 30:19). 그러나 하나님은 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

니다(욥 42:10).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겔 37:3). 에스겔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겔 37:3).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생기가 임할 때 군대가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십자가를 소망의 십자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체찍질과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재가 되었고, 사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재 속에는 성령님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히 6:19).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닻이 배를 붙잡아 주듯이,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소

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소망은 절망적인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롬 5:5). 그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니다. 십자가의 밤은 깊었습니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우리가 바라보는 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분야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교육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은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Ci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 112/admin.korea@its.edu



LA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오전 11:00
English Service 오전 9: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월~토) 오전 5:30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office@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365일 영혼의샘예배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에즈마이아 금요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현장 대면예배 오전 6시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30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안병권 담임목사

갈보리선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8700 Stal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722-4805 http://www.cmclove.net



심상은 담임목사

구세군 OC 한인교회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장소 : 94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2부 : 오후 12:30
장소 : 1515 W. North St.
Anaheim, CA 92801



김성수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Anointing 찬양위십 오후 7:3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 90710
T:(310)326-0300



이황영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오전 6:00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복된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동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사랑방 오후 1:30
장년 사랑방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8929 W. Sahara Ave. LV., NV 89117
T. (702) 562-0917 www.blessedchurch.net



김동현 담임목사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수요예배 오후 7:00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김명규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사랑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801 White Ln, Bakersfield, CA 93307
T. (310) 805-2847 bakersfieldsarangchurch,tistory.com



고익웅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8:30 am / 10:30 am
수요모임 7:30 pm
새벽기도회 6:00am (화~금)/교회 및 zoom
소망열린학교 10:00 am (금)
주일학교 10:30 am
Youth Group 10:30am (주일)
대학부 10:30 am (주일)
한국학교(zoom) 9:30 am ~ 11:50 pm (토)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섭 담임목사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1부 9:45 am / 2부: 11:15 am
주일영어부예배 9:45 am
새벽기도회 월-금 5:45 am
수요제자훈련 10:30 am
금요찬양기도회 7:30 pm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반채근 담임목사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무디고 담임목사

어스틴블레싱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BH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AFC
Blessing Worship (매주 목요일) 오후 7:30 @AFC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BH

BH 313 Brushy Creek Rd, Cedar Park, TX 78613
AFC 300 Brushy Creek Rd, Cedar Park, TX 78613
https://myblessingchurch.org, T. 512-937-2727



김준일 담임목사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남재현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한어예배 오전 11:00
영 유치부 오전 11:00
영 초중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부성경공부 오전 11:00
청년부성경공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준준 담임목사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영어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748-6878



이승희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새벽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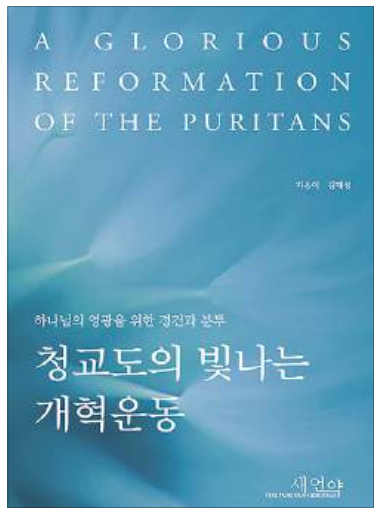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믿는대로 사는 것

청교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는 제법 청교도에 관한 책이 많이 보급된 것 같다. 조엘 비키와 마크 존스틴이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은 청교도의 가르침을 잘 분류 및 설명하는 책이고(부흥과개혁사, 2015), 조엘 비키와 마이클 리브스가 쓴 <청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청교도 입문서로 기본적인 청교도 교리와 대표적인 인물들을 잘 요약한 책이다(지평서원, 2021). 개혁된실천사에서 2024년 출간한 <청교도 베스트 컬렉션>은 주제별로 청교도들이 남긴 깊은 영성의 금언들이 잘 분류돼 있다.

번역서보다는 자연스러운 문체를 보인다. 아무래도 역사와 신학을 골고루 다루는 책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독교 형제단 역사를 다룬 책을 번역한 것을 감수한 적이 있었는데, 감수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당시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사용된 옛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일꾼들이 수고하여 훌륭한 품질의 책을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가 된다.



▲저자 김재성 박사.

청교도의 빛나는 개혁운동

김재성 | 새언약 | 368쪽 | 23,000원

청교도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책이다

청교도 운동의 시작과 절정기, 그리고 쇠퇴기를 명료하면서도 상세히 다룬 책이다

먼저 이 책은 청교도 운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청교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가 신학적 깊이 없이 신앙의 열심만 있는 경건주의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과 신학에 탁월한 깊이가 있던 자들이었다

지난 1월 출간된 <청교도의 빛나는 개혁운동>은 김재성 교수가 쓴, 국내 저자의 청교도 관련 도서로는 처음 접하는 책이다. 김재성 교수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루터·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개혁주의 신학뿐 아니라 청교도 사상과 역사에 관한 책을 다수 저술했다.

개인적으로 책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아마 시작부터 청교도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집단에 관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저자는 1장에서 '청교도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청교도를 개관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청교도의 성취와 쇠퇴'라는 이름으로 청교도가 믿고 있는 바와 쇠퇴의 원인을 밝힌다. 이후 3장과 4장에서 존 녹스, 존 오웬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5장에서 '교회 연약'이라는 신앙 체계를 다루고, 6장에서 뉴잉글랜드 장로교회의 대략적 역사를 설명한 뒤, 7장에서 '중도 연약'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청교도에 관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한 뒤, 9장을 끝으로 신학의 변질 문제를 다룬다. 추측하건대, 저자는 청교도 개혁운동의 모든 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을 만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한 것 같다.

이 책은 국내 저자 작품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아무런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저자가 '책에서 읽고 배운 청교도들을 실제로 만나고 난 후 받은 감동에서 비롯된 책'인 만큼, 청교도의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에 관한 열정을 저자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어한다(10쪽).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한국교회 실정이 한때 청교도의 나라였던 미국의 쇠퇴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한다: "현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곳들이 너무나 많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 (살전 1:3, 365쪽)."

청교도를 바라보는 역사학자의 관점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무척 유익했다.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후기 수정주의 등의 입장에 따라 같은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관점의 차이가 결국엔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를 낳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어떤 학자가 청교도 인물이나 신앙에 관해 평가를 내릴 때 전제하고 있는 학풍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실질적인 유익은 저자가 1장에서 청교도 신앙과 오늘의 교훈을 정리한 내용에 있다. '청교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 '청교도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합한 타협을 받아들인다', '청교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청교도는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청교도는 교만의 죄와 싸우는 영적 투쟁의 삶을 살았다'.

특히 저자가 직접 경험한 청교도 후손들과 그들의 교회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쇠퇴하고 있는 현대 교회에게 전달하는 교훈이 매우 크다.

물론 청교도에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 점을 분명히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시대 모든 독자가 청교도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진지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믿는대로 사는 것. 대충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 세속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등 현대 교회를 위협하는 현대 사상이 점점 교회를 쇠퇴의 길로 끌어내리고 있을 때, 청교도 신앙은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기한다.

개인이 아닌 교회, 쾌락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교회의 가장 큰 행복이며, 세상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청교도들은 교리와 삶으로 입증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개혁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는 다 양갈아서 그릇 행상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사야 53:6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復活

2026

예수부활

Resurrection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선 날
예수 날 위해 못박히신 날
처절한 비명 속
마지막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숨 거두시다
소망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절망, 죽음이 세상을 덮다

그러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다
막힌 담 허물어지고
죄가 깨지고
사랑이 물려오는 밤

더 이상
못질도 힘이 없고
창끝도 멈추고
가시도 찌를 수 없는
예수, 예수

이제 다음은 생명이다
이동진사

성금요일예배
7:30 p.m

부활의 새벽
6:00 a.m

부활의 아침
11:00 a.m

메시지
이동진 목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서봉남, 거룩한 열정으로 제작한 성경 그림

신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 연작, 무려 34년 만에 그려내다

순수한 어린 시절 그린 동심화 풍요 속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성경 내용 아우르는 성경 그림 창의적 생략 변용 줄거리 강조 흰색과 황토색, 한국적 정취로 한국교회 역사화, 해외 반출돼

서봉남의 작품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린 시절을 그린 '동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내용을 아우르는 '성경 그림'이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각각의 성격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작가는 "나는 어린 시절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꿈 많던 무지갯빛 동심의 세계 속에서 자랐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동심은 여전히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어머니와 누나까지 등장시키며 '동심화'를 확장했다. 그래서 '꿈 나무 심은 봉남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서봉남이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끌린 이유에는 인간의 맑고 깨끗한 본성에 대한 그리움이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반달'의 작사자 윤극영은 그를 '동심의 사나이'라 불렀고, 아동문학가 이원수는 그의 그림에서 '때 묻지 않은 어린이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 귀여움은 아마 인간 본질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순수한 본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현실에서 흠바닥에 구르던 아이들이나 아이를 업은 누나,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자, 어느 시기에 속하는 이야기다.

문학평론가 김우중은 그의 동심 그림에 담긴 향수는 오늘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그리워서라고 했다. 그의 작품을 볼 때면, 잃어버린 고향이나 순수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이루는 축은 성경 그림이다. 그가 성경 그림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1976년 신령한 꿈을 꾸면서부터였다.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광채를 발하며 "이제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후 자신의 달란트가 '기독교 미술'임을 깨닫고, 새벽기도회에서 그 확신이 확고해졌다.

이후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그림은 사실적 묘사보다는 창의적 생략과 변용이 특징이다. 검은 필선을 강조해 전체의 동세를 드러내고, 인물 표정이나 세부 묘사보다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한다. 이는 줄거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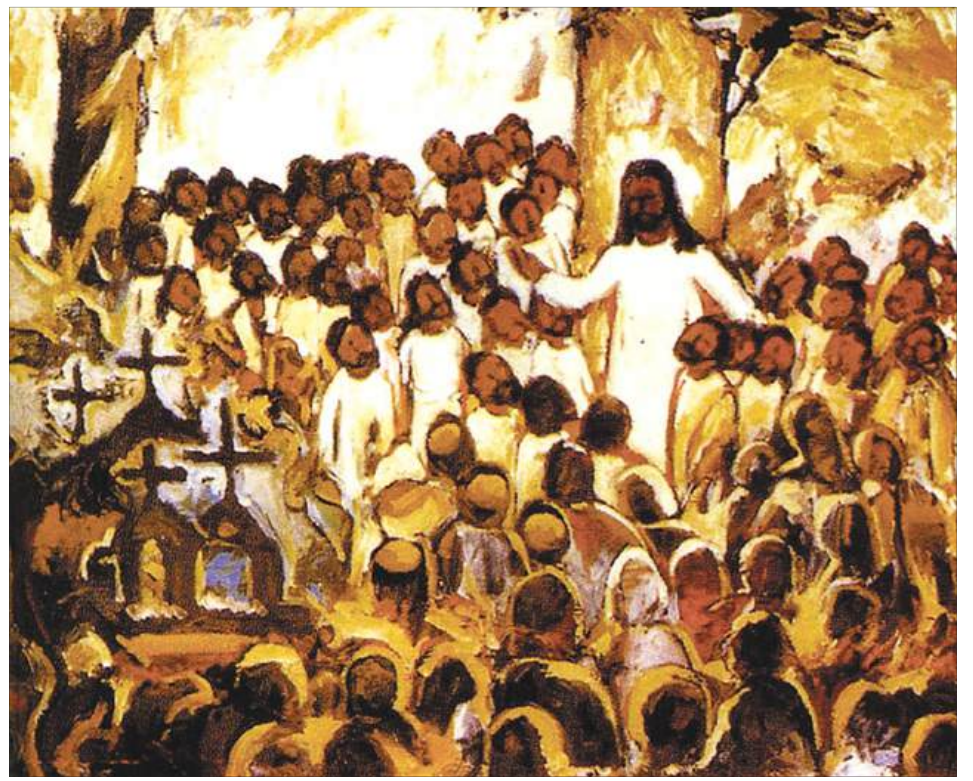
또 하나, 그의 그림에서는 흰색과 황토색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한국적 정취와 향기'를 그림에 담은 방편에서다. 작가에 따르면 흰색은 순결과 의로움을 의미하고, 황토색은 우리 민족의 땅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흰색 한복을 입은 피부를 황토색으로 표현한 것도 그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해석하려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토속적인 색채와 배경을 통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려 한 것이다.

서봉남이 특히 힘썼던 것은 성경 주제 그림이다. 30대 초반에 시작해 60대 후반까지 무려 34년에 걸쳐 작업한 이 연작은 그의 인생 최대 프로젝트이자 역작이다.

197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신약성경 이야기를 1996년, 구약성경의 장면들은 2012년까지 완성했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거쳐야 했기에, 작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차례 국내에 소개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12년 영국 스트란래어(Stranraer) 교회에 기증됐다. 스트란래어 교회는 그의 성경 그림 52점을 상설 전시



서봉남, 복음 전하는 예수, 캔버스에 유채, 100x80.3cm, 1996.

하고 있다.

이곳과 한국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스트란래어 장로교회는 구한말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 토마스 선교사(Robert Jermain Thomas, 1939-1866)를 파송한 곳이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 작가는 감회를 밝혔다. "주님께서 제 달란트가 좃붙처럼 녹아내리던 35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시며 눈물도 닦아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기독교 작품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국립 에브리 미술관에 소장된 <영광(1982-1984)>이다. 이 작품은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한국 기독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작이다. 높이 8미터 폭 4미터에 달하는 대작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역사화이다.

이 작품은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왼쪽은 '한국교회의 어제'를, 중앙은 '현대'를, 오른쪽은 '미래'를 각각 나타낸다. '어제'는 조선시대 순교자들의 모습을 입은 성도들로 표현했고, 음울한 청색으로 핍박과 순교 속에서 쓰러져 가는 선진의 모습을 묘사했다. 반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장면으로, 1,200만 성도들이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다.

작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을 드리는 청년들이다. 작가는 십자가를 둘러싼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과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도 장면을 연결해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했다.

뒤쪽에는 500명의 찬양대원들이 장엄하게 찬양하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와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노래를 바친다. 이는 남북 인구 5천만을 5백명의 합창단에 비

유한 것으로,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한국 개신교의 찬란한 역사를 시각적으로 조명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국내에서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이후 프랑스 에브리 미술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며 왜 이런 역사적 기념작들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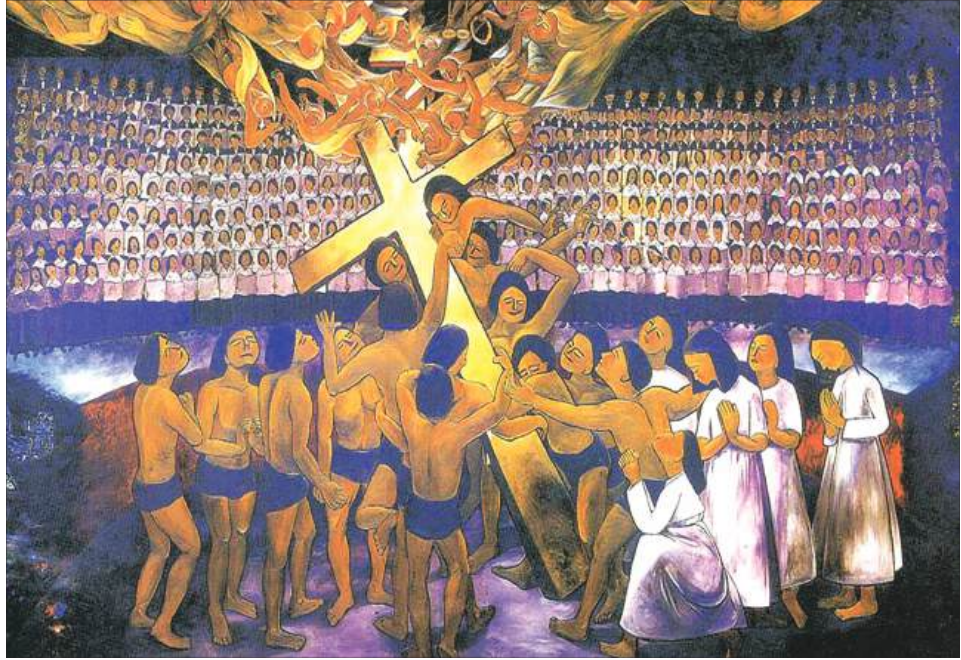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이 작품을 소장해야 할 주체는 한국교회나 기관이 돼야 하는데, 정작 이 작품들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해외에 소장되었다는 것, 이는 곧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니 누가 그 뒤를 이어받아 기념 작품을 만들려고 할까?

문화예술의 성장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콘텐츠'다. 콘텐츠 없는 문화는 생명력을 잃기 쉽고, 풍성한 문화적 유산이 되기 어렵다.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빛나는 문화예술을 구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국 기독교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대표작을 반출시켰다는 것은 교계로서도 큰 손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작품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문화적 자산들을 다시 조명하고, 제대로 보존·전시하며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서봉남만큼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작가도 드물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의 인생은 '거룩한 열망'으로 빛났으며,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서봉남, 영광, 캔버스에 유채, 4000호, 1982-84. 언뜻 고갱의 작품이 연상된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가주 샬롬교회는 15년 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토랜스에 위치한 장로교단(PCA) 소속 교회로서 현재 담임목사님의 정년 은퇴 일정에 맞추어 목양 / 선교 및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 2) 목회 경력 5년이상 이신 분
- 3) 미국 장로교(PCA)교단 가입에 문제 없으신 분
- 4)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5)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 하신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2) 목회 비전 및 본인과 가족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 3) 최근 한국어 설교 동영상 2편(website link도 가능)
- 4) 추천서 2부

3. 기타사항

- 1) 이메일: Shalomsearch@yahoo.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 2)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된 후 마감 합니다.
- 3)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4) 서류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결정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1004.com)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랍 맥코이 목사 “한국의 종교 자유, 오히려 더 악화돼”

미국 보수 기독교계의 지도자 랍 맥코이 목사(Rob McCoy, 터닝포인트 USA Faith 의장)가 최근 방한해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방한 배경과 한국 사회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독교인의 공적 역할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



▲랍 맥코이 목사(터닝포인트 USA Faith 의장).

손현보 목사 석방 촉구 위해 방한
 맥코이 목사는 먼저 이번 방문에 대해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석방 소식을 접한 이후 이를 직접 축하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연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교회의 확대와 열정을 경험했다”면서도 “동시에 교회 안팎으로 형성된 긴장된 분위기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약 4년 전 ‘빌드업코리아’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그는 김민아 대표의 소개로 손현보 목사를 처음 만났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교회 예배와 관련된 규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손 목사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후 미국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손 목사를 소개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목사의 상황을 접하며 ‘실마 감옥에까지 갈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구속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찰리 커크 역시 손 목사의 구속 소식을 듣고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손 목사 구속 직후 관련 법적 문서와 기소장을 영어로 번역해 방송에서 다루려 했으나, 유타 벨리대학교에서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됐다. 그는 “당시 한국인 친구는 감옥에 갔고, 또 다른 친구는 죽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이후 미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미 백악관 신앙사무소 고문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마크 워

커(Mark Walker) 수석고문 등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를 전달했고, 손 목사의 자녀들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 데도 일조했다. 결국 손 목사는 석방됐고, 맥코이는 이를 ‘종교 자유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방한에서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종교해산권’? 자유사회에 맞지 않아

특히 최근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종교해산법’에 대해 그는 “정부에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이단 및 사이버 단체의 폐해 근절을 위한 장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법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에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컬트 문제로 정부가 개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일반적인 종교 자유까지 탄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가 종교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 사회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종교 자유에 매우 일관된 입장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지금까지 펼쳐

왔던 정책이 상당히 일관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종교 자유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40년 전 이란 문제에 대해 했던 말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으며, 종교 자유를 지키려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못하게 했던 ‘린든 존슨 조항’을 폐지했고, 폴라 화이트 고문과 마크 워커 수석고문 등을 임명해 종교 자유를 강화했다. 맥코이 목사는 “J. 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손 목사를 건을 언급하고 그 뒤로 손 목사가 풀려난 사실만 봐도, 백악관이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맥코이 목사는 자신의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그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일부 흐름은 이러한 가치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을 예로 들며, “기독교인이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정의와 자유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며 “트럼프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이 여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백악관은 상당히 의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지키기 위해 부와 명예와 생명을 바쳤고, 지금도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6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의 경우 그 비율이 1%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전 세계에 테러 자금을 지원하며 수많은 자국민을 학살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은 가만히 지켜만 보는가”라고 했다.

그는 “미국 역시 PC주의, 동성애 문제 등으로 교회가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공화국 체제이자 연방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 악법이 통과되면 우선 해당 주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 차원에서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고, 이제 각 주에서 악법에 대처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라는 권리는 근육과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사될 때 유지된다”고 했다.

찰리 커크의 죽음, 신앙적 각성 계기 돼

맥코이 목사는 특히 찰리 커크의 죽음이 오히려 신앙적 결집과 각성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폭력까지 등장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성경 판매 및 교회 출석자 증가, 그리고 학교 및 대학 캠퍼스 내 자발적 예배 모임 확대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히 19세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젊은 남성층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세대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앙적 열정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수만 명 규모의 기독교 집회가 열리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빌드업코리아’ 행사 당시를 회상하며 “김민아 대표와 관련 단체들이 외부 압박을 받았고, 일부 후원 교회와 기업들이 이탈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찰리 커크 사건 이후 한국 청년들이 ‘내가 찰리 커크다’라고 담대히 거리에서 외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의 침묵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신앙과 사회 참여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악 앞에서의 침묵은 그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철도 위에서 있으면서 다가오는 열차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성경은 ‘누구를 섬기지 택하라’고 기록돼 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냉담’이다. 기독교인은 냉담할 여유가 없다. 진리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 태도는 공동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세상에 진리를 전할 책임이 교회에 있으며,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자유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침묵은 동의와 같다... 교회는 더 이상 냉담 말아야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는 도덕성과 사회성이 결합된 공동체의 핵심 영역”이라며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의 실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제도를 예로 들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타협, 이해와 희생을 반복하는 과정은 곧 사회의 축소판”이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육되고 전해져야 한다”고 했다.

맥코이 목사는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며 “기독교인이 사회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전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명이 단지 교회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학생모집 캠퍼스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금때문에 CD를 어뉴이티로 옮겨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59세 싱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수지 박입니다. 제가 11남매 중 막내라서 어머니님 연세가 93세로 연세가 많습니니다. 다행히 어머니님 기력이 없으실 뿐 큰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저도 하는 일이 재택근무 전문직이라 제가 어머니님 돌아가실 때 까지 모실 계획입니다. 저에게는 은퇴 적령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노스니 일하자고 생각해도 아마 70년에서 까지도 일하는게 가능하고요, 인컴은 높고 대신 자녀도 없고 해서 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 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제가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빼고도 여기 저기 CD에 넣어 놓은 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6만불 정도를 냈습니다. 저희 CPA님은 제가 401k도 엄청 많이 넣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었던 돈을 괜히 CD에 넣었나 싶을 정도로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선영씨의 유튜브를 봤고 거기에 어뉴이티가 나오던데 어뉴이티가 세금을 안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문선영씨는 저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찾아 뵈기 전에 과련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은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CD는 아시다 시피, 계약이 끝나고 찾게 되면 반드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따라서 일년이나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CD 상품을 찾아서 옮겨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그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보통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니다. 그래서 CD와 비교되는 플랜이 어뉴이티입니다. 먼저 CD의 목적은 1년이나, 8개월 등등 계약 기간 이후에 내가 그 돈을 사용해야 할 자금이다 싶을 때 단 그나마 이자를 받는 단기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 선생님께서 내가 그 돈을 1년 후에도 찾아 쓸 일이 없다 싶으면 당연히 어뉴이티를 통해 찾게 찾아 쓰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으며, 둘째 CD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가 오히려 상황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채널에서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지 선생님 이 CD에 있는 돈을 은퇴 후 인컴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첫번째 어뉴이티, 무엇보다 돈을 넣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예를 들어 8년 후부터 100세까지 딱딱 딱 매달 마지 소실연금처럼 인컴으로 지급되는 고정인컴 어뉴이티를 하나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내가 찾아 쓰기 전까지 절대 탕스를 내지 않고 계속 돈을 불리다가 내가 찾아 쓰겠다 싶은 시기 부터는 100세까지 혹은 내가 사망할 때 까지 고정 인컴을 받아서, 결국 내 돈을 세배 정도까지 총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일을 오랫동안 할 계획이고, 인컴도 높을 뿐 아니라 소셜과 401k 등을 통해서 은퇴 인컴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된다 싶으시면 두번째 어뉴이티, 복리로 이자를 받으며 매년 늘어나고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찾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뉴이티 역시 내가 찾아 쓰지 않는 한 이자를 매해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은 불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CD에 가지고 계신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첫번째 고정인컴 어뉴이티와 두번째 복리로 불리는 어뉴이티를 나눠서 넣어 굴려야 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쓰고 사망하는 경우 누구에게 남겨놓을 것인지에 걱정이 아닌지에 따라서 이 어뉴이티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 CD보다는 길지만 일반 어뉴이티 계약 기간보다 짧은 어뉴이티를 원하신다면 또 고정이자를 받는 MYGA 같은 어뉴이티와도 조합을 해서 나눠 플랜을 하실 수도 있지요. 결론적으로 매년계약이 끝날 때 마다 세금 내는 것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어뉴이티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수지 선생님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고 어떤 어뉴이티에 얼마만큼 나눠 넣을 지 등등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뉴이티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저희 매니저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당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당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 선생님, 수지 선생님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CD에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것만 6만불 정도라면 일단 상당히 많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온가족이 함께하는 바이오텍 줄기세포 비즈니스 미션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라이프 비전

Teloyouth Business Mission인가?

- 1. 가족이 함께 일하는 행복**
한 가족, 한 팀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함께 성장
- 2. 리더십 & 코칭 시스템**
코치 라이선스 + 워크샵
→ 마음관리 · 리더십 · 영향력 성장
- 3. Business as Mission(BAM)**
비즈니스 현장이 곧 선교 현장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나눔

20-30대 TeloPet(텔로펫)

- 세계 최초 반려동물 줄기세포 영양 프로그램
-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의 회복 사례”
 - 걷지 못하던 반려견이 다시 걷기 시작한 실제 이야기
 - SNS 시대, 차세대 인플루언서를 위한 최고의 기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오가닉 슈퍼푸드 기반

www.TeloHealing.com/pet

젊은 세대에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



40-50대 TeloYouth 비즈니스 기회

-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
- 세포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혁신 기술
- 91% 재구매율 — 강력한 지속 수익 구조
- 독점 세포신호 기술 (Cell Signaling)
- 줄기세포 활성 최대 36배 가능
- 수만 명의 놀라운 체험 사례
- 권위있는 제3기관들에서의 6가지 임상실험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일년안에 월 \$10,000 - \$100,000 가능
 - 빠르게 확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 www.TeloHealing.com

60대 최고의노후 준비 “은퇴 플랜”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춘 프로그램
- 12개월 머니백 보장
- 기대 효과
 - 수면 · 에너지 회복
 - 근육 · 뼈 건강
 - 혈당 콜레스테롤 · 혈압
 - 스트레스 · 호르몬 균형
 - 위장 · 뇌 · 시력 건강 등등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까지 회복

- 평생 무료제품이 가능한 마일리지 시스템
- www.teloyouthkorean.com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축복의 통합 플랫폼

건강 | 경제 | 리더십

5월달 행사 안내 (예약 필수 · 마감일 4월 26일)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Telo Biotech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미션 비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 : 5월 2일(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설명회

- 날짜 : 5월 9일(토) 오후 2시
(영어로 진행)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닥터 초청 세미나

- 날짜 : 5월 16일(토) 오전 9:45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날짜 : 5월 16일(토) 오후 5:00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 날짜 : 5월 17일(일) 오후 5:00
68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90005

문의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